

숲정이

예수 성탄 대축일 2012년 12월 25일 (다해)



전주교구 주보

2013년도 교구장 사목교서
“신앙의 해와 새로운 복음화”



발행인 | 이병호 편집 | 전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2109호 <http://j catholic.or.kr> E-mail | catholic114@hanmail.net
주소 | 560-110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번지 전화 | (063)230-1004 팩스 | (063)230-1175



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.
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.
(이사 9, 1)

그림 : 허명순 마리비타 수녀



성탄 대축일을 맞아



이병호 빈첸시오 주교
전주교구장

1969년 미국 동부시간으로 7월 20일 오후 10시 56분 20초, 아폴로 11호에서 내린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찍으며 말했

습니다. “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하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.” 이 말은 이분이 거기에 남긴 발자국과 함께 인류의 뇌리에 새겨져 오래 남을 것입니다. 그는 달 위에서 3시간을 머물며 표본을 채집하고 연구를 진행한 다음 고향인 지구 별로 돌아왔습니다. 인류는 그를 영웅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접했지만, 그 자신은 아주 평범하고 겸손하게 살다가 지난 8월 25일 천명을 다하고, 말하자면, 지구를 떠났습니다. 그런데,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우리 신앙인에게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. “인간이 달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하느님이 지구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.”

그렇습니다.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,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이 작은 지구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걷고 웃고 울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. 오셔셔도, 단순하게 지구의 표면만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, 인간의 삶 구

석구석, 그 출생과 죽음, 기쁨과 슬픔, 희망과 좌절, 미움과 사랑, 빛과 어둠의 골짜기를 어느 한 구석도 예외 없이, 다 걷고 통과하고 맛보고 겪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구에 태어나 사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과 슬픔, 희망과 좌절, 사랑과 배신, 심지어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극한의 외로움을 두고도, 하느님께서 그것은 이해 못 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리스도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불려온 주옥 같은 노래가 이를 잘 표현합니다. “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”(필립 2,6-7). 과연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와 똑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 찌꺼기까지 몸소 맛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

2 요르단 강은 2천년 전에 예수께서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, 지금도 그 물은 따로 축성하지 않고 세례수로 사용합니다. 그런데 어찌 지구 위에서 아주 작은 그 강, 그 물뿐이겠습니까!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사신 이 지구, 나아가 물질세계 전체가 그분의 오심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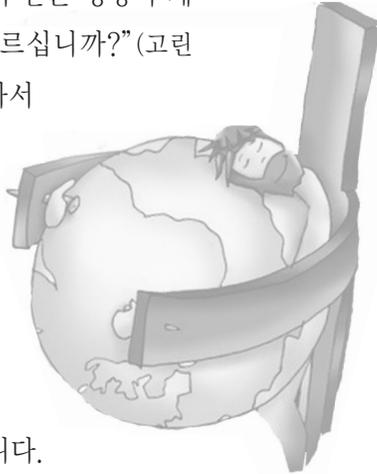


니겠습니까! 또 거룩하게 된 것이 어찌 외부 세계만이겠습니까? 그분이 정말 들어오신 장소는 물질세계만이 아니라, 우주의 재료와 정기를 다 모아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아니겠습니까?

과연 그렇습니다. 물질과 정신,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 속으로 하느님이 들어 오셨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로 해서 인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. 인간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,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. “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?”(고린 6,19). 암스트롱은 달에 가서 그 표면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3시간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인 지구 별로 돌아왔지만, 하느님은 지구에 오셔서 33년을 머무시고 당신의 생명, 그 영을 남겨놓으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분은 몸으로 계실 때보다 더 깊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영은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의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.

3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랑의 불길을 우리에게 옮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속에 잠기는 또 하나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. “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.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

느냐?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. 이 일을 다 겪어 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”(루가 12,49-50). 그렇게 해서 “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”(요한 15,13) 하신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더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삶 전체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, 생애 첫 순간부터 십자가는 늘 이분을 따라다녔습니다. 이분이 탄생하시자마자 곧바로 죽이려 한 헤로데의 음모, 그리고 마굿간



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봅니다. 십자가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라면,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눈으로 확인합니다. “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”(요한 3,16).

사람이 되신 말씀 -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있기를. 그리하여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. 마침내 온갖 세상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도,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상적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언제나 여러분을 감싸주시기를 빕니다.

†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저녁 미사

제 1독서 이사 62,1-5

화답송 시편 89(88),4-5,16-17,27과 29(◎ 2가)

◎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

제 2독서 사도 13,16-17,22-25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내일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, 구세주 우리를 다 스리시리라. ◎ 알렐루야.

복음 마태 1,1-25<또는 1,18-25>

영성체송 이사 40,5 참조

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,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

†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

제 1독서 이사 9,1-6

화답송 시편 96(95),1-2,7,24-31,11-12,13(◎ 루카 2,11 참조)

◎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.

제 2독서 티토 2,11-14

복음 환호송 루카 2,10-11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.

◎ 알렐루야.

복음 루카 2,1-14

영성체송 요한 1,14

말씀이 사람이 되셨네.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.

†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

제 1독서 이사 52,7-10

화답송 시편 98(97),1,2-3,7,13,34과 4-5-6(◎ 3과)

◎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

제 2독서 히브 1,1-6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. 민족들아,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.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.

◎ 알렐루야.

복음 요한 1,1-18<또는 1,1-5,9-14>

영성체송 시편 98(97),3

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